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겹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by the Layer Image

2012년 8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김 해 숙

겹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연구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by the Layer Image

지도교수 김종현

이 논문을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7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예학과

김 해 숙

김해숙의 미술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7월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목 차

요약.....	i
표목차.....	ii
도목차.....	ii
작품목차.....	iii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방법 및 범위.....	2
II. 이론적 배경	3
1. 겹의 일반적 고찰.....	3
1) 겹의 개념.....	3
2) 겹의 이미지.....	4
3) 작품 사례	7
2. 원과 원기둥의 일반적 고찰.....	11
1) 원과 원기둥의 정의와 특성.....	11
2) 작품 사례	13
III. 작품제작 및 해설	17
1. 작품계획	17
2. 제작과정	18
3. 작품해설.....	23
IV. 결론	32
참고문헌.....	33
Abstract.....	34

요 약

예술은 정신적 사고와 감정이 물질과 만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인간의 활동으로 단순히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에서 벗어나 미적 감정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며 더욱 발전시킨다. 이러한 예술 속에 표현된 대상은 작가 스스로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며 점차 작가의 개성과 내면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겹의 형상적 이미지들 중 하나인 종이의 겹 이미지를 원과 원기둥에 결합한 도자 조형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기하학 형태는 강한 질서를 갖으며, 논리적이면서 합리적인 형태이고 시각적으로 명쾌함을 준다. 또한 장식을 제거한 단순한 형태이기에 간결함 속에서 함축적인 상징적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겹의 이미지와 기하학 형태를 통해 겹의 중첩과 세월의 흔적,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의 개념을 간결하면서도 미세한 선의 흐름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겹의 감각적 인상과 함축된 의미들을 다양하게 조형적으로 표현하고 이미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Ⅱ 장에서는 우선 겹의 일반적 고찰을 통하여 겹의 개념과 자연과 인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형태의 겹 이미지를 알아보았으며 현대미술에서 표현된 형상들을 회화, 조각, 도예작품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과 표현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작품의 형태를 이루는 원과 원기둥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예술작품 속에 작가 개성에 의해 나타나는 원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다양한 작품들의 예시와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본인이 나타내고자 한 종이의 겹 이미지를 기하학 형태에 담아 시각화하고자 하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하였다.

Ⅲ 장에서는 연구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 계획 및 제작과정, 작품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작품계획에서는 종이의 겹 이미지를 원과 원기둥 형태로 계획하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 페이퍼클레이와 파이프를 이용하여 형태적 접근을 시도한 제작과정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겹 이미지들 중 하나인 종이의 겹 이미지를 원과 원기둥 형태로 표현하였고 찢는 행위를 통하여 종이의 질감과 긴장감 있는 선들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시각적으로 다양한 의미의 겹을 표현하고 전달 할 수 있었다.

표 목 차

<표 1> 페이퍼클레이 조합비.....	18
<표 2> 수분 함유량.....	18
<표 3> 색 안료 혼합비.....	19
<표 4> 소성 그래프	22

도 목 차

[도 1] 나이테.....	5
[도 2] 지층.....	5
[도 3] 꽃 잎.....	5
[도 4] 물결파.....	5
[도 5] 산등성이.....	5
[도 6] 계단.....	6
[도 7] 오래된 책.....	6
[도 8] Jackson Pollock, 1950. 「Autumn Rhythm (Number 30)」	7
[도 9] David Salle, 1995. 「Old Bottles」	7
[도 10] 홍다슬, 2009. 「Layer」	8
[도 11] 김아타, 2008. 「on-Air project 110-2: Times Square」	8
[도 12] 진현미, 2009. 「겹-0103」	8
[도 13] 박찬걸, 2011. 「Sliced Image DAVID」	9
[도 14] 임선이, 2007. 「Trifocal sight」	9
[도 15] Jacqueline Rush Lee, 2008. 「Unfurled」	9
[도 16] Marc Leuthold, 2004. 「우주의 반구」	10
[도 17] Sara Rasford, 2011. 「esprit de corps」	10
[도 18] Magari Kazuma, 2010. 「지면위에 02」	10
[도 19] Pafa Perez. 「Untitled 34」	10
[도 20] 조신현, 2007. 「선의 흐름Ⅱ」	10
[도 21] 권진희, 2008. 「stripe」	10

[도 22] 만다라	13
[도 23] Wassily Kandinsky, 1912. 「여러 개의 원」	14
[도 24] 판테온 신전 돔 내부	14
[도 25] 오동훈, 2012. 「Red Bubbleman」	15
[도 26] 이재효, 2009. 「0121-1110=1091013」	15
[도 27] 이성근, 2012. 「인간+자연+빛」	15
[도 28] Bodil Manz, 2006. 「건축적 부피」	16
[도 29] 윤솔, 2006. 「Variation 2007-04」	16
[도 30] 강창성, 2008. 「CircleVI」	16
[도 31] 노혜신, 2010. 「Installation View」	16
[도 32] Tetsuya Yamada, 2010. 「천공의 시간」	16
[도 33] 서희숙, 2011. 「Flow」	16
[도 34] 손으로 찢은 페이퍼클레이 모습	19
[도 35] 작업에 사용한 석고 틀과 PVC파이프	20
[도 36] 석고틀을 이용한 성형 과정	21
[도 37] PVC 파이프를 이용한 성형과정	21

작품목차

[작품 1] Layers_I	23
[작품 2] Layers_II	24
[작품 3] Layers_III	25
[작품 4] Layers_IV	26
[작품 5] Layers_V	27
[작품 6] Layers_VI	28
[작품 7] Layers_VII	29
[작품 8] Layers_VIII	30
전시장 전경 A, B	31

I. 서 론

1. 연구목적

예술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공존하고 있다. 또한 예술은 예술가에게 있어서 존재의 방식이고 그들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의 표현이 작가의 주관적 해석에 의한 비유적 의미를 포함한다. 이러한 특징은 인간 내면의 감성을 담아 실제와 다른 형태로 표현되고 추상성을 갖게 된다.

계절이 바뀌면서 생겨나는 나무의 나이테, 퇴적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지층의 단면, 오랜 시간 손때가 묻은 책장 종이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선의 겹은 시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흔적으로 세월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하학 형태는 극도로 단순화 된 형태이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에 있어 매우 잘 전달된다. 또한 정리되어 규칙적인 배열 및 명쾌하고 지적인 형태로 구성, 형태가 주는 간결함 속에서 함축된 의미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 함축된 의미는 객관적인 형태 속에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에너지를 표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하학 형태의 특징을 도입함으로써 겹이 많아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복잡함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자연과 인간이 창조해낸 형상적 겹과 추상적 겹 이미지를 흙이라는 매체만이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질감을 살려 겹에서 보이는 조형미와 세월의 흔적을 표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겹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한 도자조형 연구로서 먼저 다양한 겹 이미지들에 대해 조형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고 겹이 현대미술 작품 속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조형의지에 따라 해석된 조형미를 표현하는 방법과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기하학 형태인 원과 원기둥에 대해 형태적인 특성과 상징적 의미에 관하여 참고문헌과 관련 자료를 통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현대미술에서 원과 원기둥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와 표현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자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 작품의 소지는 일반 소지에 비해 성형이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종이의 겹 질감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페이퍼클레이(paper-clay)를 사용하였다.

작품의 제작방법으로 페이퍼클레이 판을 4cm 내외의 넓이로 손으로 찢어 자연스럽게 찢긴 질감을 내고 이를 원통형의 내틀과 외틀 이용하여 성형하였다. 이때 여러 장의 페이퍼클레이가 겹쳐 만들어진 겹의 이미지를 주된 표현의 대상으로 하였다.

행위는 예술품이라는 물질적 구현물에 의미를 담는 행위이며, 예술품이 가진 의미를 사물을 통해 혹은 사물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 페이퍼클레이 판을 손으로 찢음으로써 종이의 질감을 표현 할 뿐만 아니라 행위의 흔적과 기록을 작품에 담고자 하였다.

사용된 페이퍼클레이는 흰색(white), 노란색(yellow), 주황색(orange), 청색(cobalt blue)등 4가지 색상으로 하였다. 판 성형시 주된 색상 중간에 다른 색상의 판을 사용하여 자칫 단조롭게 느낄 수 있는 겹의 느낌과 형태에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주고자 하였다.

유약은 작품의 질감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고 1250℃ 단벌 산화소성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접의 일반적 고찰

1) 접의 개념

접은 사전적 의미로 물체의 면과 면 또는 선과 선이 포개진 상태, 비슷한 사물이나 일이 거듭되는 것을 말한다.¹⁾ 이와 비슷한 어휘로는 ‘중, 중복, 중첩, 이중, 켜’등이 있다.

선은 조형의 기본적인 단위로 점과 면의 중간에서 형태의 질감을 표현하며, 공간의 시작이며 동시에 경계를 의미한다. 또한 회화에서 사용되는 조형의 기초단위로서 선은 역동성을 지닌 표현적인 것으로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갖도록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²⁾

선들이 모여 면을 만들며, 면들이 쌓여 입체를 구성한다. 접은 입체를 이루는 면들의 중을 의미하며, 면들이 쌓여 만들어 내는 경계들이 모임이다. 겹겹이 쌓여 졌을 때 선의 모습은 자신의 영역을 나타내고 그 단면을 통해 또 하나의 다른 면, 다른 심상을 만들어 낸다.³⁾

접은 포개진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내며 접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나 공간이 있도록 겹쳐지면 이것은 새로운 공간을 갖게 된다. 이때 겹과 공간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평면에 여러 접의 면을 첨가시키면서 다층적으로 발생하는 상, 하, 좌, 우의 공간은 중첩에서 느낄 수 있는 투명성과 물질성을 보충한다. 그리고 공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며, 공간과 대상을 형식화하여 중첩의 표현을 통해 공간의 가변성과 역동성을 유출시킨다. 겹에 의한 공간 해석에 있어서는 부드러움과 긴장감을 주고, 화면구성에서의 시각적 중첩이나 겹침은 전체 화면 내에서 일어나는 공간관계를 강화시켜준다.

접치기에 대하여 모홀리 나기(Moholy Nagy)는 그의 저서 「운동에서 시각, Vision in Motion, 1947」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접치기는 공간과 시간의 고정화를 극복하는 것이다. 형태의 중첩에 의해서 의미 없는 특이성도 의미 있는 복잡성으로 변화된 중첩에 의한 투명감은 물질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구조적 성질을 표면화 하면서 전후 배경의 투명성도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 김준일·박남희, (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p.25

3) 최석원, (2007), 「섬유질을 이용한 점토레이어의 표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

암시한다.”⁴⁾

이는 겹치기를 통하여 시각적 연속성을 지각하게 되고 공간의 깊이는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서 보는 이의 인식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를 보게 된다는 것으로 겹이 가지는 의미작용을 설명하고 있다.

조지 케페스(Gyorgy Kepes)는 중첩에 대한 공간감을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만일 하나의 공간형태가 다른 형태에 가리어서 볼 수 없게 되어도 우리는 뒤에 가리어진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겹쳐있는 형상을 볼 때 첫째의 것, 즉 맨 앞의 것은 두 개의 공간적 의미 그 자체와 그 자체 밑에 있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다른 형상의 볼 수 없는 표면을 가리운 형상은 더욱 가까운 것으로 지각되어져 공간적 차이나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 중첩의 표현은 깊이를 가지며 그것은 공간감을 일으키게 된다.”⁵⁾

겹은 형태적으로 깊이와 공간감, 운동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세월의 흔적, 과거에서 현재까지 시간을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겹의 집합으로 조합된 형태들은 새로운 세계를 재창조 하고 형상적 표현을 넘어 개념의 확장을 이끌어 낸다.

2) 겹의 이미지

겹에는 시각적으로 인식 할 수 있는 형태론적인 것과 추상적인 느낌만을 가지는 의미론적인 것이 있다.

구체적 형상을 시각적 겹의 형태로 강조하기도 하고 주제를 병치하거나 동시에 사용하여 생각의 깊이를 표현하는 의미론적인 겹이 존재를 나타내기도 한다.⁶⁾

가령 하나의 그림 위에 다른 그림을 얹어서 그린다면 시각적 겹이 강조된 것이고, 하나의 주제 위에 다른 주제를 병치하거나 동시에 사용한다면 의미론적 겹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형태론적 겹 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겹으로 우리주변, 특히 자연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 나이트, 지층, 꽃잎, 물결과 등이 대표적인 예

4) Colin Rown, (1984),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Transparency: Literal and Phenomenal, The MIT press, p.160

5) 유한태 역, (1989), 「시각언어」, 대광서림, p.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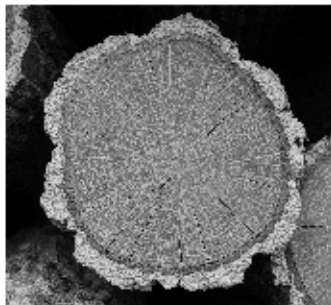
6) 남행선, (2006), 「겹의 이미지들 이용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9

이다. 이러한 겹은 계절, 응축된 시간, 에너지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준다. 또한 자연경관에서의 겹은 넓고 깊은 광활함을 보여준다. [도 1, 2, 3,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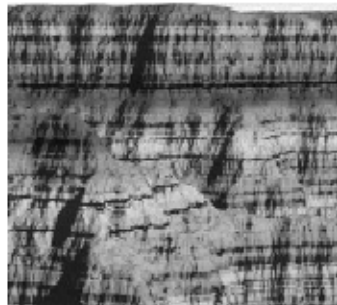
겹은 서로 포개어진 사이에 끝임 없이 수축 팽창하면서 나타나는데 나이테는 계절, 날씨 등에 의해서 생기며 넓고 좁은 다양한 두께의 선들을 보여준다. 동시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자연현상에서 나타나는 과거, 현재의 함축된 시간을 보여주며 다양한 넓이의 겹이 생성되는 과정에서는 속도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겹의 진하고 옅은 색감에서 느낄 수 있는 색채의 조형성도 느낄 수 있다.⁷⁾

지층의 단면은 오랜 시간동안 물과 바람에 의해 흩이 퇴적되어 색이나 구조가 다른 암석들이 교호하며 쌓여 있는 줄무늬로 보이게 된다. 이를 통해 광활함을 느낄 수 있으며 과거의 시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물결파는 잔잔한 물에 충격을 주면 물의 진동이 수면에 원형으로 퍼지면서 나타난다. 눈에 보이지 않던 힘이 물결을 이루며 나타남으로써 에너지의 이동을 느낄 수 있다.



[도 1] 나이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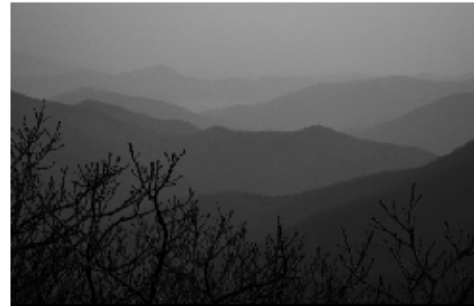
[도 2] 지층



[도 3] 꽃 잎



[도 4] 물결파



[도 5] 산등성이

7) 남행선, 상계서, p.3

자연에서 뿐만 아니라 인공물에서도 겹의 이미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계단과 책장을 들 수 있다.

계단은 인간이동의 순환경로, 통행경로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고저(高低)의 차이로 인해 분절된 두 공간을 연결시키는 도구이므로 단순한 통행경로만이 아닌 인간사의 고리이기도 하다. 상승, 하향적 의미를 갖고 있는 계단은 계층, 권력, 사회적 욕구로 나타내고 있다. [도 6]

책은 한 장의 종이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수 십, 수백 장 종이를 겹쳐 만든 것이다. 이러한 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의 손때가 묻고 흔적을 세기고 자연스러운 겹의 모양을 이루며, 시간을 기록하는 의미로 나타낸다. 또한 여러 장의 종이를 말거나 접었을 때 나타나는 겹은 역동적이면서 의도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겹을 보여준다. [도 7]



[도 6] 계단



[도 7] 오래된 책

의미론적 겹 이미지는 주제를 병치하거나 동시에 사용하여 생각의 관념적 깊이를 표현한 것이다. 뚜렷한 형상보다 가상적인 선들의 조합으로 신비감, 몽환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겹의 형상을 표현한다.

형상화해 만들어진 조형적 철학적 의미는 극히 작가의 주관적 해석으로 겹의 본연 자체만으로도 추상적 이미지를 갖기도 한다. 정서적 개입과 미학적 표현으로 자유로운 비결정적 겹의 형태만 부각 시키고 조형적 개념을 추월하기도 한다. 의미론적 겹은 기억의 잔상으로도 볼 수 있다. 수많은 추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고 이를 되 집어 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미지와 맞물려 다른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기록이 더해가면서 그 이면에 존재했던 과거의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시간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체득된 경험들이 늘어나게 된다. 어느 지점에서 최초의 것들은 그 자취를 아예 보이지 않게 되고 또 다른 기억의 잔상만이 남게 된다.

3) 작품 사례

점은 시각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많아 회화, 사진, 조각 작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작품 [도 8]은 화폭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격렬한 액션이 가는대로 물감을 흩뿌림으로써 대상과 채색이 하나로 융합된 세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화폭을 잘라내고 틀에 끼움으로써 순수한 회화면이 화면전체를 뒤덮는 올 오버기법을 창출해 냈다. 잭슨 폴록의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반복과 지움의 행위로 인해 작품 속에는 투명과 불투명이 교차해 나타나고 겹겹이 물감을 뿌리는 행위를 통해 공간감을 형성하는 중첩효과가 나타난다.

데이비드 살르(David Salle)의 작품 [도 9]는 회화의 표현에서 주된 전략으로 투명정보보다도 화면 내에서 다층적 구조와 두 개 혹은 세 개로 분리된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물이 보는 사람에 따라 의미를 달리하는 이중적이고 모호한 성격을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화면을 해체, 재구성함으로써 고유의 개체적 의미를 없애버렸다.



[도 8] Jackson Pollock. 1950.
「Autumn Rhythm (Number 30)」



[도 9] David Salle. 1995
「Old Bottles」

공간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은 공간을 완성해 갈 뿐만 아니라 그 공간 속에서 삶을 누리지만 아울러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한다. 홍다슬의 작품 [도 10]은 평면 속 입체적 공간감에 대해 3차원적 입체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풍경이나 공간을 재구성하며, 화면을 넘어선 확장의 이미지를 보여주어 단면적 공간이 아닌 전체적으로 지각하도록 유도한다.

김아타의 작품 [도 11]은 하루 수십만 대의 자동차와 수십만 인파가 휩쓸고 가는 세계 공연예술 산업의 심장을 8시간 내내 카메라를 열어 포착했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과 자동차 등이 모두 사라진다. 시간의 기록과 축적 앞에 부질없는 존재의 본질을 표현한 작품이다.

진현미의 작품 [도 12]는 시각을 통한 인식과 통찰이 얼마나 가변적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우리가 경험한 산수는 결국 무수한 시각적 감각이 반복적 층으로 구성된 인식이고 평면의 차원이 아닌 공간의 차원으로 이끌어 냄으로써 시각적 인식의 환경에 변화를 주려한다. 잘게 잘린 낱장들이 모여 또 다시 전체를 이루면서 단일적인 것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각경험과 깊이를 제시한다. 겹과 겹 사이를 응시하고 움직이면서 감상주체 스스로의 감각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작품을 대면함으로써 공간 안에서 무한과 시간의 초월을 경험한다.



[도 10] 홍다슬, 2009
「Layer」



[도 11] 김아타, 2008.
「on-Air project
110-2: Times Square」



[도 12] 진현미, 2009.
「겹-0103」

박찬걸의 작품 [도 13]은 각 유닛 사이의 간격을 열어 공간을 확보한다. 그 사이에 발생하는 공기의 흐름, 사이를 통해 보여 지는 틈새의 풍경도 작품의 일부로 간주한다. 작품 표현의 일부인 ‘잔상’으로 관람자들에게 다가가고 겹(layer)과 층이 만들어내는 물결과 같은 조각이다. 어느 방향과 시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조각품이 보이는 면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겹의 파노라마를 따라 촉감을 유도하고, 틈새 맞은편의 관람자와 눈을 마주치게 함으로써 즐거운 조각예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임선이의 작품은 새로운 주변 공간의 이질적이고 낯선 것들을 모두 포용하고 자연을 통해 작가의 인식을 반영하는 섬세한 형식으로 여행이란 텍스트를 취한다. 작가는 그 같은 풍경, 그리고 그런 풍경과 함께 하는 우리들 삶에 대한 성찰과 인식의 변화를 서정적으로 작업 안에 깊이 담아내고 있다. [도 14]

재클린 러쉬 리(Jacqueline Rush Lee)는 재활용 책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로 책의 친밀한 촉감과 강력한 경험의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작업의 아이디어는 블록을 쌓아 올리는 형태나 책장을 펼친 상태에서 얻는다. 책을 원형으로 다루기도 하고 개념적으로 책을 변형하기도 한다. 책의 일률적인 배열을 배제하고 물질과 개념적으로 변형함으로써 다른 예술 형태로 구현하고 있다. [도 15]



[도 13] 박찬걸.
2011.
「Sliced Image
DAVID」



[도 14] 임선이.
2007.
「Trifocal 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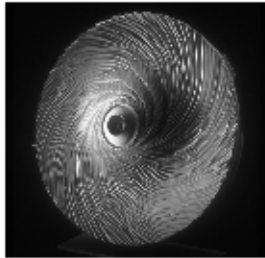
[도 15] Jacqueline Rush
Lee. 2008.
「Unfurled」

마크 렛홀드(Marc Leuthold)작품 [도 16]은 기본 형태는 기하학 개념에 의해 구성된다. 예술, 과학, 종교적, 우주에 대한 천문학적 개념을 반구 속에 담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가는 18세기 독일 철학자 야콥 비메가 우주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기하학적인 원형에서 작품의 착안을 얻었다. 가운데 초심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는 반구는 우주의 구형을 본 뜬 것으로 이는 소우주를 통해 대우주를 표현한다.

사라 램스포드(Sara Ransford)는 자연의 복잡함에 매료되었다. 복잡하게 연결되어있는 모습이 자신의 내면세계와 닮아있다고 느껴 자연 세계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간적 측면에서 침식의 힘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다. 한순간에 걸쳐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변화가 진행되고 이러한 요소는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 낸다. 작가는 이러한 내면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도 17]

마가리 카즈마(Magari KAZUMA)의 작품 [도 18]은 얇은 판을 여러 겹 이어

불여 마치 성난 파도처럼 보이기도 하고 단층들이 섬세하게 연결 되어 있는
듯 한 모습은 역동적 형상과 신비로운 색감을 표현한다.



[도 16] Marc
Leuthold. 2004.
「우주의 반구」



[도 17] Sara Rasford. 2011.
「esprit de corps」



[도 18] Magari Kazuma.
2010. 「지면위에 02」

라파엘 페레즈(Rafa Perez)의 작품 [도 19]는 백자토와 검정색 석기점토를 사
용하여 화산 풍경을 연출하고 확장한 작품이다. 처음 형태를 잘라 새롭게 만
들고 가마에서 예측할 수 없는 표현을 의도하였다.

조신현 작품은 공간이나 크기에 제한이 없는 작업을 중심으로 단순한 형태를 이
용하여 입체적인 조형미를 표현하고 색채와 형태의 반복이 시각적으로 주는 아름
다움을 조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서로 다른 색판들이 겹쳐 선을 이루고 그
선들로 인한 면에 조각을 함으로서 선들이 변화하고 서서히 하나의 조형물로 진
화되는 것을 표현하였다. [도 20]

권진희의 작업은 특별한 의미나 주제에서 출발하지 않고 반복적 행위에 대한 결
과물이다. 일정한 규격의 띠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생기는 색과 면이 빈 공간을 완
성한다. 부분적인 반복, 제한된 색상 단순한 형태를 취하여 불필요한 장식을 배제
하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도 21]



[도 19] Pafa Perez.
「Untitled 34」



[도 20] 조신현.
2007. 「선의 흐름Ⅱ」



[도 21] 권진희. 2008
「stripe」

2. 원과 원기둥의 일반적 고찰

기하학이라는 단어 geometry는 그리스어의 geometrein (geo:땅, metrein:측정하다)으로부터 유래되었다.⁸⁾ 이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토지의 분배를 위하여 측량에 필요한 도형의 연구가 시작되어 그리스에 들어가서는 논리적인 유클리드 기하학⁹⁾으로 체계화되었다.

기하학적인 형태란 평면에 원, 삼각형, 사각형 등으로 간결하게 응축되어진 단순화된 형태로 이것을 공간으로 입체화시키면, 기둥체와 다면체, 그리고 구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본인 작품 전반적 형태를 이루는 원과 원기둥 위주의 이론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1) 원과 원기둥의 정의와 특성

(1) 원과 원기둥의 정의

원(圓)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등글게 그려진 모양이나 형태, 또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제적 및 그 제적에 둘러싸인 평면도형으로 정의한다.

원은 다각형의 각이 그 수가 늘어가면서 각이 차츰 둔화되어 각이 완전히 없어지면 만들어진다. 시작이나 끝이 없이 순환되는 특성으로 인해 영원과 전체성의 사상을 의미하며 사랑과 화합을 상징하는 가장 간결한 형태 중의 하나이며 가장 명쾌하고 단순한 시각적 패턴으로 집중력이 강하고 함축성이 있는 형태이다. 원은 폐쇄된 공간을 가지며 구심력과 원심력이 긴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균형 있는 형태로 움직임의 순환과 회전의 항상성을 가진 동적 형태임과 동시에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는 정적인 형태이다.¹⁰⁾

아른하임은 인간의 운동구조에서 등근 형태는 기본적인 형태라고 규정하였고 “그 자체 어떤 방향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중심에서 대칭적인 원형은 가장 단순한 시각적 형태이다”라고 하였다.

8) 이종우, (2000), 「기하학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 경문사, p.1

9) 유클리드 기하학 :유클리드의 저서 《기하학원본》에 기초한 기하학을 뜻하나, 이것에 공리적으로 전개한 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을 집성한 《기하학원본》 13권은 제8권까지는 평면기하, 제11권 이하는 입체기하이나 제7~9권은 정수론(整數論), 제10권은 무리수(無理數)의 이론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피타고라스·플라톤 학파에 축적되어 있던 막대한 지식의 집대성(集大成)으로서 단순한 지식을 모아놓은 것은 아닌 계통적 이론체계로서 정리된 것이다.

10) 김미옥·백숙자, (2000), 「입체조형의 이해」, 그루, p.32

원기둥은 평행하는 윗면과 밑면의 다각형의 각이 둔화되면, 즉 각기둥의 측면의 수가 무한대로 늘어나 만들어진 형태이다. 또는 사각형의 옆면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형성된 입체이다. 수직구조로 되어있고 구심적인 원의 특징과 직선적인 요소도 내포하고 있어 안정감과 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다.¹¹⁾

원기둥은 실용적인 형태이다. 원기둥은 시각적으로 구형과는 달리 계속 되는 운동감보다는 운동이 멈춘 상태, 즉 언젠가는 또 다른 운동을 하 수 있는 상태이며, 합리적이기 보다는 분석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다.

(2) 상징적 특징

원은 조형적 특징 이외에도 상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원은 끝없는 순환성과 운동감이 우리의 주의력을 끄는 강한 시지각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적인 특징으로 인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생활 속에 깊게 연결되어 생활철학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불교의 윤회설에서는 원의 형태상의 순환성을 시간에 대한 해석으로 마치 수레바퀴처럼 돌고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고 여긴다. 또한 서양의 철학자들은 원을 정신세계의 표현으로 풀이하였으며,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정신을 구에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모든 형상을 내포하고 있는 가장 완전한 형태이며 영원히 존재하는 신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의 철학 사상인 태극을 들 수 있는데, 태극은 우주 만물이 생긴 근원이라고 보는 본체로 하늘과 땅이 아직 나뉘기 전의 세상 만물의 원시상태를 말한다.

원은 우주의 본질 또는 생명의 진수를 뜻하며, 시작과 끝이 없기에 영원을 상징한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태양 숭배로서의 원, 꿈이나 신화 속의 원, 티베트의 승려자가 그리는 만다라, 고대 천문학자가 생각했던 우주 개념으로서의 원, 이러한 모든 상징은 예외 없이 생명의 원동력이 되는 궁극적인 완전성을 표상한다.¹²⁾

칸딘스키는 “우리의 심리상태 속에 원이 무의식적으로 우월하고 신성한 모티브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원이 우리의 주의력을 끄는 매우 강한 시지각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있음과 동시에 원에서 사방대칭형으로 발산되는 힘들

11) 조희택, (2008),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를 이용한 도자조형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12) 백민정, (2010), 「원의 반복을 모티브로한 도자 조명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4

과 서로 상쇄되고 있어서 제자리에서 안정을 취하는 형태 자체의 완벽함 때문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원은 평면 형태들 중에서도 색채를 띠지 않는 가장 순수한 안정감을 느낌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원은 항상 균형 있게 작용하고 있는 두 개의 힘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며 각각의 어떤 강제적인 성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의 중심점은 더 이상 고립되어 있지 않는 점을 지닌 가장 완전무결 한 휴식이다.”라고 원의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¹³⁾

특히 종교에 있어서 원이 상징하는 의미는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만다라이다. [도 22] “밀교(密敎)에서 발달한 상징의 형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佛畵)로써 신성한 단(壇:성역)에 부처와 보살을 배치한 그림으로 우주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다. 원래는 ‘본질(maa)을 소유(la)한 것’이라는 의미였으나, 밀교에서는 깨달음의 경지를 도형화한 것을 일컬었다. 그래서 윤원구족(輪圓具足)으로 번역한다. 윤원구족이란, 낱알의 살(輻)이 속바퀴축(轂)에 모여 둥근 수레바퀴(圓輪)를 이루듯이, 모든 법을 원만히 다 갖추어 모자람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¹⁴⁾



[도 22] 만다라

원은 그 형태가 지닌 조형성과 시각적 특성의 우수함으로 인해 예로부터 우리 생활주변에 존재 해 왔고 현재까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매우 친밀함을 관계를 갖고 있다. 인간의 내면에 있어서도 철학과 종교 등 상징적 의미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는 기하학적이며 추상적인 원이 예술과 생활 속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발전 되고 있다.¹⁵⁾

2) 작품사례

현대 추상미술을 창시한 작가이자, 추상미술의 이론가로 기하학 형태에 의한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이론으로 설명한 프랑스의 화가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는 원의 형태를 즐겨 다루었다. 그의 작품 「여러 개의 원」은 비눗방울처럼 둥둥 떠있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각각의 원은 모든 형태의 균형을 갖추어 통일을 이룬다고 설명하였다.¹⁶⁾ [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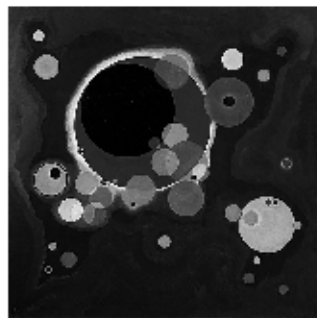
13) Wassily Kandinsky, (1997), 「점.선.면」, 차봉희역, 열화당, p.114

14) 두산백과사전

15) 김여름, (2008), 「원의 형태들 응용한 장식용 화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16

16) 이경미, (2006), 「원의 상징적 이미지들 이용한 섬유작품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

로마 시기의 가장 위대한 건축으로 많은 건축가들은 판테온을 꼽는다. 판테온은 그리스어 ‘판테이온(Πάνθειον)’에서 유래한 말로, “모든 신을 위한 신전”이라는 뜻이다. 판테온의 돔은 8개의 아치형 지주로 받쳐져 있고 돔 중앙 천장에는 직경 9m의 둥근 창이 뚫려 있어 이 창을 통해 신전 안으로 햇빛이 들어온다. 빛은 태초의 신의 모습이자, 영원한 형상의 형식이었다. 이곳에 들어선 모든 사람들은 쏟아지는 똑 같은 빛에서 하나가 된다. 비례의 미와 방대한 내부 공간의 창조는 당시 경이적인 토목기술로서 서양건축사상 명작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도 24]



[도 23] Wassily
Kandinsky. 1912.
「여러 개의 원」



[도 24] 판테온 신전 돔
내부

오동훈의 작품 [도 25]는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대변하는 작품이다. 빠르게 움직이다 점차 느려지는 움직임을 통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 중압감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작품과 소통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가 현실에서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요약이고 단면임을 말하고자 하였다.

이재효의 작업에 나타난 공 형상은 그 자체로 자연이 내포하고 있는 질서를 모방한 것이다. 작가는 자연의 본성을 하나의 원으로서 이해하고 있고, 이는 작가의 작업에서 원형과 원통 그리고 원기둥의 기하학적인 형태와 같은 원의 다변화된 형식으로서 나타난다. 원형(圓形)의 기하학적인 형태를 빌려 자연의 원형(原形)을 표상한 것이다. [도 26]

이성근은 가벼움이 무게의 상실이라 아니라 자유로운 움직임이라 생각하고 기둥이나 중심축 없이 부유하는 유기체 작품을 표현하였다. 공중에 매달린 이 조각은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움직이며 작품의 그림자까지가 하나의 완성된 작품으로 생각하였다. [도 27]



[도 25] 오동훈, 2012.
「Red Bubbleman」



[도 26] 이재효,
2009. 「0121-1110=
1091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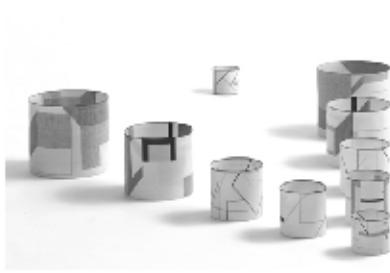
[도 27] 이성근, 2012.
「인간+자연+빛」

보딜만츠(Bodil Manz)의 [도 28]은 기하학적 드로잉이 그려진 10개의 단순한 용기가 방사형으로 뿔어 용기의 건축적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다. 생활과 조형도자의 특징을 넘나들며 도자 본연의 투명한 아름다움이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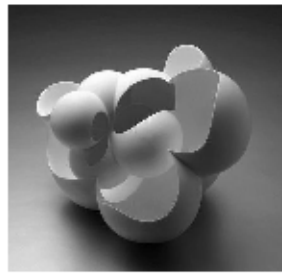
윤솔의 작품 [도 29]는 세포가 생성된 후 복제, 분열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며 재생산을 거쳐 증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하였다. 증식을 통해 보다 큰 개체가 형성되고 성장하며 성숙해간다.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이 껍질의 이미지이며, 껍질의 의미이다. 따라서 껍질은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는다. 생명의 본질임과 동시에 보호막이며, 생명의 집이자 생명의 원형인 것이다. 이러한 생명체의 흔적인 껍질을 세포분열 한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생명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강창성의 작품 [도 30]은 태양의 붉은 빛을 받은 듯 한 표면의 느낌으로서 원통의 길이와 넓이 차이를 주어 마치 알 수 없는 행성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작품 표면의 선이 주는 규칙과 반복 속에서는 우주의 영원과 새로운 행성을 찾으려 하였다.

노혜신의 작품 [도 30]은 안료를 이용한 색소지의 실험 과정을 통해 색상을 결정한 후 슬립을 분고 쏟아내는 과정을 시간을 두고 반복한다. 첫 번째 부어진 슬립으로 형태를 만들고 그 형태 안에 다양한 색상들을 배열하고 조각함으로써 패턴과 색의 상관관계를 통한 형상적 단위를 지각하게 한다.



[도 28] Bodil Manz. 2006.
「건축적 부피」



[도 29] 윤솔. 2006.
「Variation
2007-04」



[도 30] 강창성. 2008.
「CircleVI」



[도 31] 노혜신. 2010.
「Installation View」



[도 32] Tetsuya
Yamada. 2010.
「천공의 시간」



[도 33] 서희숙.
2011.
「Flow」

테츠야 야마다(Tetsuya Yamada)의 [도 32]는 형태와 색상에서 보여주는 기
품과 순수함, 깊은 사색이 잘 표현된 작품이다.

서희숙의 작품 [도 33]은 붕대를 이용하여 치유와 위로를 하나의 표현 방식
으로 표현하였다. 붕대는 때로 고통을 그대로 그려낸 상처로 보일 수 있으나
그것은 또 하나의 치유가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붕대를 감아올리는 작업
방식은 작가에게 몰입의 상태로 만들어주며 이러한 상태는 작가 본인에게 스
스로 가했던 자해의 시간들을 치유해주고 그것에서 진정한 자유로움과 편안함
을 느끼게 해준다.

IV. 작품제작 및 해설

1. 작품계획

본 연구는 겹 이미지 중 하나인 종이 겹 이미지를 모티브로 하여 여러 장의 종이를 겹쳤을 때 나타는 수많은 겹과 내면의 시간 개념을 간결한 형태에 담아 표현하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 나타내고자 하는 겹은 포개진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내고 겹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나 공간이 있도록 계획하였다. 이러한 겹침은 새로운 공간을 갖는 겹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때 나타나는 겹과 겹 사이 공간에는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다.

기하학 형태는 장식을 제거한 단순한 형태이며, 간결함 속에 함축되어 있는 상징적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겹의 특징을 기하학 형태에 대응으로써 시각적으로 간결하고 명쾌하게 전달 할 수 있어 작품의 형태로 계획하였다. 겹 이미지를 원과 원기둥으로 표현함에 있어 단순함과 규칙성에 대한 탐구와 아울러 찢는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우연성, 시간의 축적 등을 겹 속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겹의 이미지를 작품으로 표현하는 제작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백색 종이의 질감 표현은 백색도가 높은 울트라 슬림 소지에 한지를 섞은 페이퍼클레이를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둘째, 작품에 적합한 종이의 질감, 의도되지 않은 우연성, 행위의 기록 등이 표현될 수 있도록 페이퍼클레이 판을 제작하였고 이를 종이처럼 찢어 나타나는 단면을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셋째, 겹을 표현함에 있어 여러 장의 페이퍼클레이를 다양한 겹치기 방법으로 제작하고 판과 판 사이에 노란색(yellow), 주황색(orange), 청색(cobalt blue) 색상을 사용하여 단조로울 수 있는 흰색에 생동감을 주고 지층의 단면, 낡고 오래된 책과 같은 겹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넷째, 성형은 높이와 지름이 다른 4종류의 석고 틀과 PVC파이프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 하고 전기가마에서 1250℃ 단별 산화소성으로 계획하였다.

2. 제작과정

1) 소지

본 작품 제작에 사용된 소지는 페이퍼클레이로 가장 큰 장점은 건조 및 소성 수축으로 인한 균열 변형을 최소화 하고 자유로운 형태를 성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본 작품에서 얻고자하는 낡고 찢어진 종이 질감을 가장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다.

작품에 사용된 페이퍼클레이의 조합비는 다음과 같다.

〈표 1〉 페이퍼클레이 조합비

원료	실크소지 슬립	한지(닥종이)	화선지	계
조합비(%)	97	1.5	1.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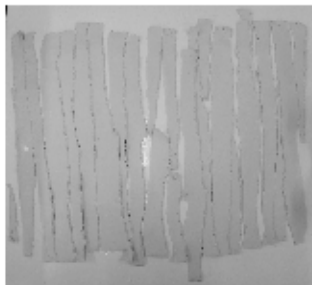
〈표 2〉 수분 함유량 (100g 기준)

원료	울트라 슬립	한지(닥종이)	화선지
수분함유량(%)	40	71	70

울트라 슬립에 물에 불린 한지와 화선지를 5 : 5 비율로 섞어 교반한다. 한지만 사용해서 페이퍼클레이를 만든 경우 일반 종이보다 섬유질의 길이가 길어 원하는 방향으로 찢기 어렵다.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화선지를 함께 섞어 소지를 만들면 한지만 사용했을 때 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찢기 수월하다.

페이퍼클레이를 오랫동안 실온에 보관하게 되면 종이 섬유질이 부패하게 되고 곰팡이가 퍼 악취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페이퍼클레이는 사용할 만큼 그 때 그 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성형



[도 34] 손으로 찢은
페이퍼클레이 모습

석고판 위에 페이퍼클레이슬림을 한 방향으로 여러 번 붓으로 덧발라 1~2mm 두께로 만든다. 동일한 두께를 얻기 위해 계량컵을 사용하였다. 그 양은 슬림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붓으로 덧바를 경우 한 방향으로만 붓질을 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판을 손으로 찢을 때 끊어지지 않고 단면이 일정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슬림이 물기가 안보일 정도로 건조되면 석고판에서 분리해 랩으로 덮어 플라스틱박스나 스티로폼박스에 보관한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 여러 장의 판을 한꺼번에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한다. 판을 랩으로 덮어 보관하면 판과 판이 붙는 것을 방지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수분이 유지되어 빨리 건조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색 안료를 사용하여 겹 이미지를 표현한 경우 판을 만드는 방법은 위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석고판에 슬림을 흰색(white)-청색(cobalt blue)-흰색(white), 청색(cobalt blue)-흰색(white)-청색(cobalt blue) 순으로 발라 판을 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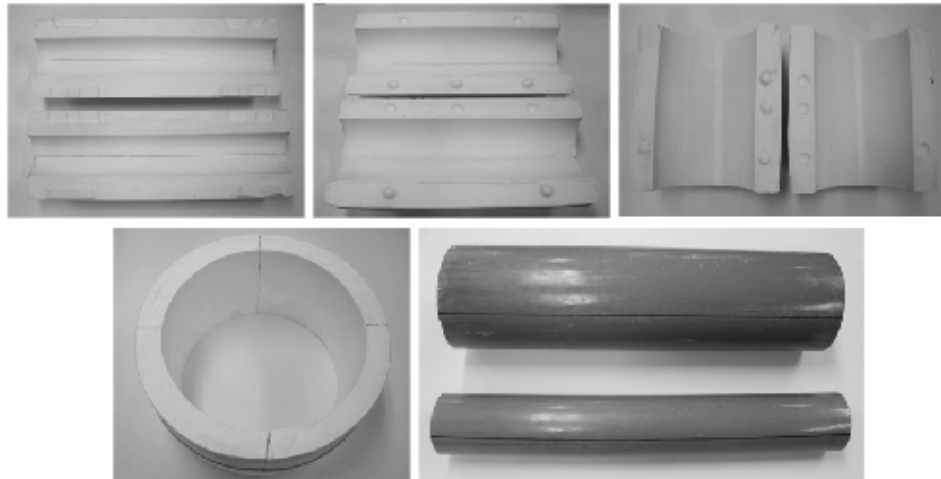
본 연구 작품에 사용한 고화도 색 안료는 yellow, orange, cobalt blue 색상을 사용하였고 사용량은 다음과 같다.

<표 3> 색 안료 혼합비 (100g 기준)

색상	yellow	orange	cobalt blue
사용량(%)	1	1	0.3

yellow와 orange 색상은 전체 작업 분위기와 어울림을 고려하여 원색보다 연한 파스텔 톤으로 하였다. cobalt blue는 다른 색상보다 발색이 좋아 적은 양으로도 원하는 색감을 낼 수 있어 0.3%만 소지에 사용하였다.

작품 성형은 석고 틀과 PVC파이프를 사용하였다. 작업에 사용된 석고 틀은 $\varnothing 70 \times h500\text{mm}$, $\varnothing 140 \times h500\text{mm}$, $\varnothing 140 \times h200\text{mm}$, $\varnothing 300 \times h150\text{mm}$ 로 지름과 높이를 다르게 제작하여 작업에 사용하였다. 석고 틀을 사용하여 작품제작을 한 경우 겉 단면이 정리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PVC 파이프의 경우 $\varnothing 70 \times h500\text{mm}$ 사이즈 한가지로 파이프 겉면에 페이퍼클레이 판을 이어 붙여 제작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석고 틀을 사용했을 때 반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 35] 작업에 사용한 석고 틀과 PVC파이프

(1) 석고틀을 이용한 성형방법

세로 겹을 석고 틀을 이용해 표현 할 경우 석고 틀의 1/2, 1/4씩 페이퍼클레이 판을 겹쳐 최종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진행하였다. 가로 겹의 경우 결합된 석고 틀 안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다.

페이퍼클레이 판은 너비가 40mm 미만이 되도록 손으로 찢어 사용한다. 이렇게 찢은 페이퍼클레이 판은 석고 틀 1/2, 1/4쪽의 중심부터 붙여나간다. 붙일 때 판의 너비를 다양하게 사용해서 붙여야 최종적으로 중심부 빈 공간에 수많은 겹들이 운동감 있게 나타날 수 있다.

가로 겹을 보여주는 작품은 석고 틀을 제작할 때 원하는 높이보다 절반정도 낮게 제작해야 작업이 수월하다. 그렇지 않으면 손이 석고 틀 밑바닥까지 닿기 어려워 작업에 큰 어려움이 있다. 200mm 높이로 제작한 틀 안에 판을 차곡 차곡 쌓아 올리고 어느 정도 건조되었을 때 탈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원하는 높이의 개수를 만들고 이를 이어 붙인다.

석고 틀 안에서 성형과 결합이 이 끝난 작품은 틀에서 1~3일 정도 건조 후 탈형 해야 원기둥 형태가 휘지 않고 나올 수 있다.

(2) PVC파이프를 이용한 성형방법

세로 겹을 보여주는 작품 제작방법은 우선 PVC파이프를 가로로 눕혀 파이프의 1/2만큼만 판을 이어 붙인다. 그런 다음 파이프를 세워 나머지 1/2를 붙여

성형 한다. 처음부터 세로로 세워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려 쓰러질 우려가 있다.

PVC파이프는 판을 붙이기 전 신문지로 감싸고 그 위에 비닐을 둘러 작업을 하면 성형 후 파이프만 제거할 수 있다.

가로 겹을 보여주는 작품의 경우 PVC파이프를 세워 밑에서부터 판은 쌓아 올라간다. 이때 사용하는 파이프에도 신문지와 비닐을 감싸서 사용해 파이프만 제거하면 된다.

석고 틀을 사용하는 경우 건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탈형 하는데 반해 PVC파이프 위에서 성형한 경우 작업이 끝나고 4~5시간 지나고 나서 파이프를 제거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흠이 수축하면서 붙었던 면이 떨어지고 금이 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도 36] 석고틀을 이용한 성형 과정



[도 37] PVC 파이프를 이용한 성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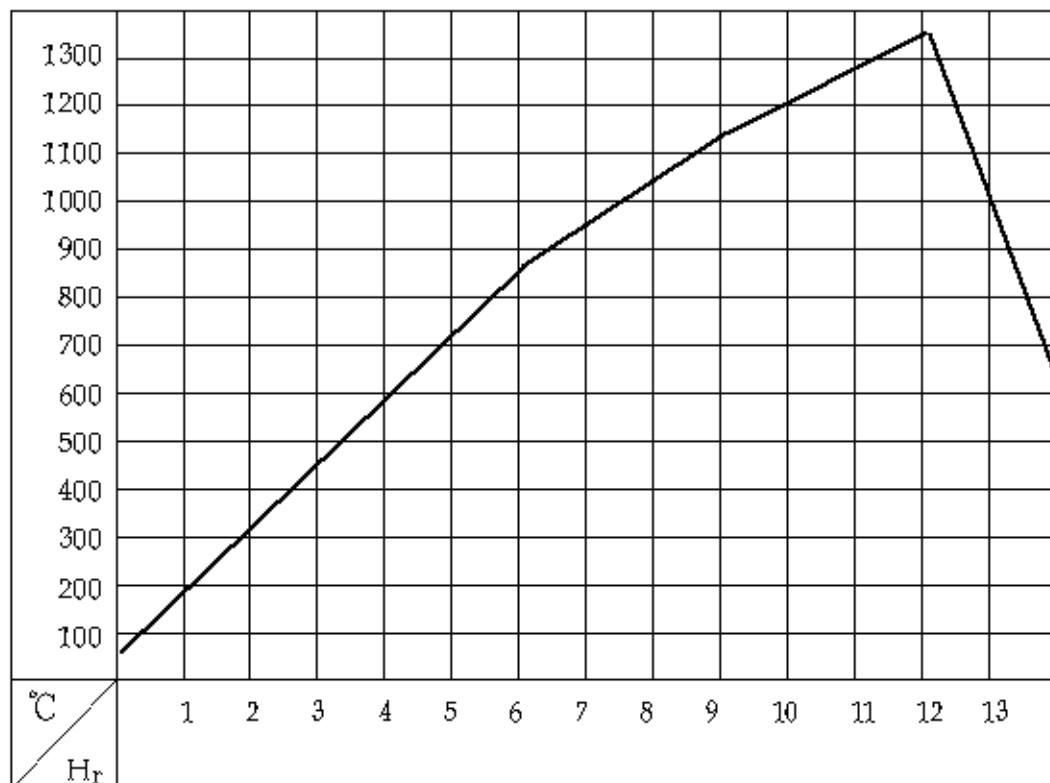
3) 소성

소성은 전기 가마를 이용하여 산화 소성하였다.

찢어진 겹의 단면이 유약에 덮여 종이 질감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약을 사용하지 않는다. 유약을 사용하지 않기에 초벌 과정 없이 1250℃로 단벌 소성하였다. 그리고 작품 바닥에 밑판을 함께 소성하여 기물이 수축하면서 생기는 변형을 줄이고 내열판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작품에 묻지 않게 하였다.

페이퍼클레이를 사용해 작품을 만들고 소성을 할 경우 종이가 가마에서 연소되고 연기가 발생한다. 종이의 발화점이 232℃여서 350℃까지는 가마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조금 열어놓아 남아있던 수분과 연기가 빠져갈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소성 그래프



3. 작품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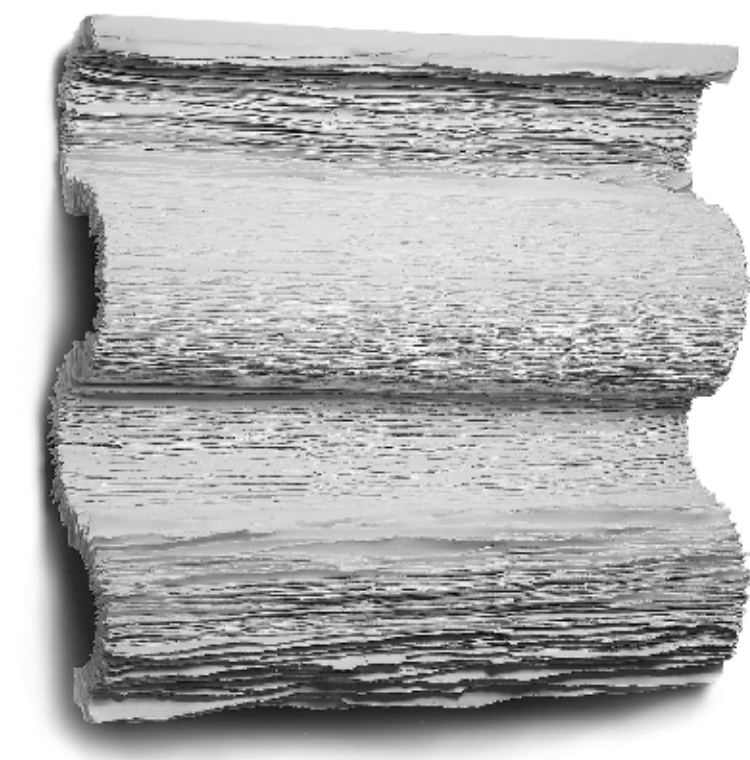
[작품 1, 2] Layers 1, II

Layers 1, II 는 석고틀과 파이프를 이용하여 반쪽씩 여러 개를 성형하여 이를 의도한 대로 배열함으로써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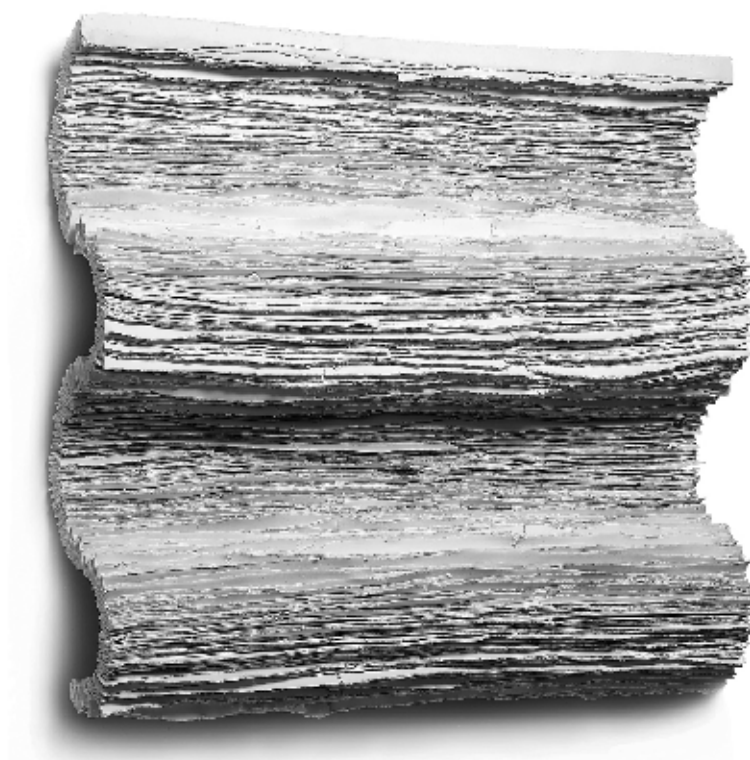
작품 속에는 두 개의 원기둥이 존재하고 있다. 단지 이를 1/2씩 전개해 펼쳐 놓았을 뿐이다. 이 속에는 일렁이는 물결 이미지도 담겨 있고 지층의 모습과 생성시간, 오래된 책장에서 보이는 기록의 흔적도 담겨있다.

형태 결면에 정리된 겹의 이미지는 고요하고 잔잔한 형상을 보여주고 반대로 정리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겹의 집합은 역동적이고 긴장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작품에 빛을 비추면 굴곡진 형태를 따라 그림자가 생겨 겹의 깊이를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색을 함께 사용하여 형태에서 보이는 겹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겹 사이 새롭게 만들어진 중첩된 공간과 시간의 축적, 기록의 흔적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1] **Layers I**, 500x600x140mm , 1250℃ 산화소성



[작품 2] **Layers II**, 500x600x140mm , 1250℃ 산화소성

[작품 3] Layers II

백색과 cobalt blue를 중첩시킨 결과 수많은 겹들이 생겨나 한 가지 색으로만 표현했을 때 보다 겹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나타난다. 두 색상의 반복적 중첩을 통해 작품 겉면에는 수많은 층이 쌓이고 쌓여 마치 지층의 표본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백색만을 사용한 작품과 백색 사이에 cobalt blue를 사용해 만든 작품, 그리고 cobalt blue 사이에 백색을 사용한 작품을 한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색상과 원근감에 의한 그라데이션 효과와 더불어 작품이 시점에 따라 중첩되기도 하고 원근법에 의한 공간감이 생겨나 겹침과 중첩, 원근감에 의해 겹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작품 3] Layers II, 700x700x500mm, 1250°C 산화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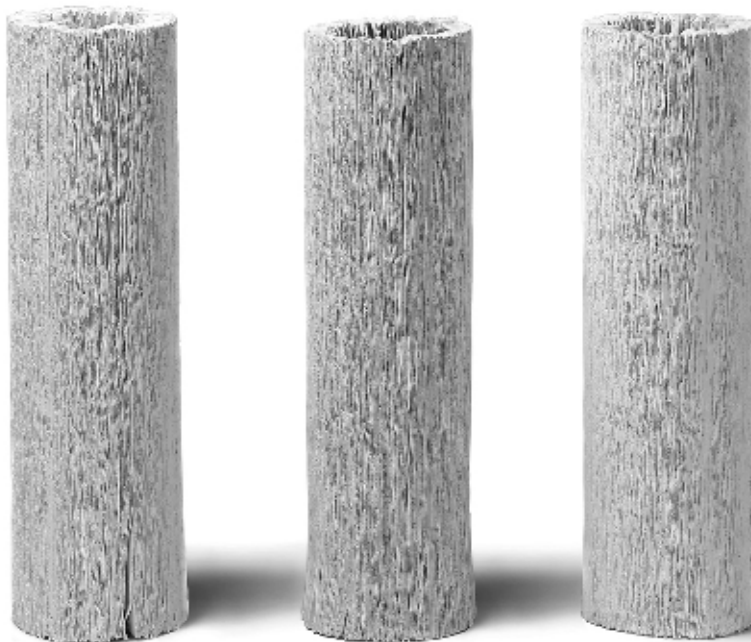
[작품 4, 5] Layers IV, V

같은 성형 방법으로 제작한 작품 4, 5는 정리된 겹들이 겉면으로 나타나고 원기둥 형태를 하고 있다.

세로로 나타나는 겹은 위에서부터 바닥면에 이르기까지 수직으로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방향성과 운동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Layers IV는 같은 크기의 원기둥을 일렬로 배열하여 시각적인 안정감과 정적인 느낌을 표현해 보았다. 그리고 가운데 원기둥에는 백색 사이에 cobalt blue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서로 결합, 분리되는 역할을 하여 겹의 이미지가 극대화되도록 표현하였다.

Layers V는 Layers IV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였으나 의도하지 않게 소성 중 붙었던 면이 떨어져 그 틈으로 속에 있던 겹을 관찰 할 수 있다. 소성에서 생겨난 기물의 갈라짐은 겉면에 또 다른 겹의 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의도하지 않았던 우연성에서 작품 속 겹을 재발견 할 수 있었다.



[작품 4] Layers IV, 700x300x500mm , 1250°C 산화소성



[작품 5] Layers V, 500x700x500mm , 1250°C 산화소성

[작품 6, 7] Layers VI, VII

두께감 있는 선들이 모인 겹은 오랜 시간 차곡차곡 쌓인 본인 작업의 기록이고 반복적 행위의 집합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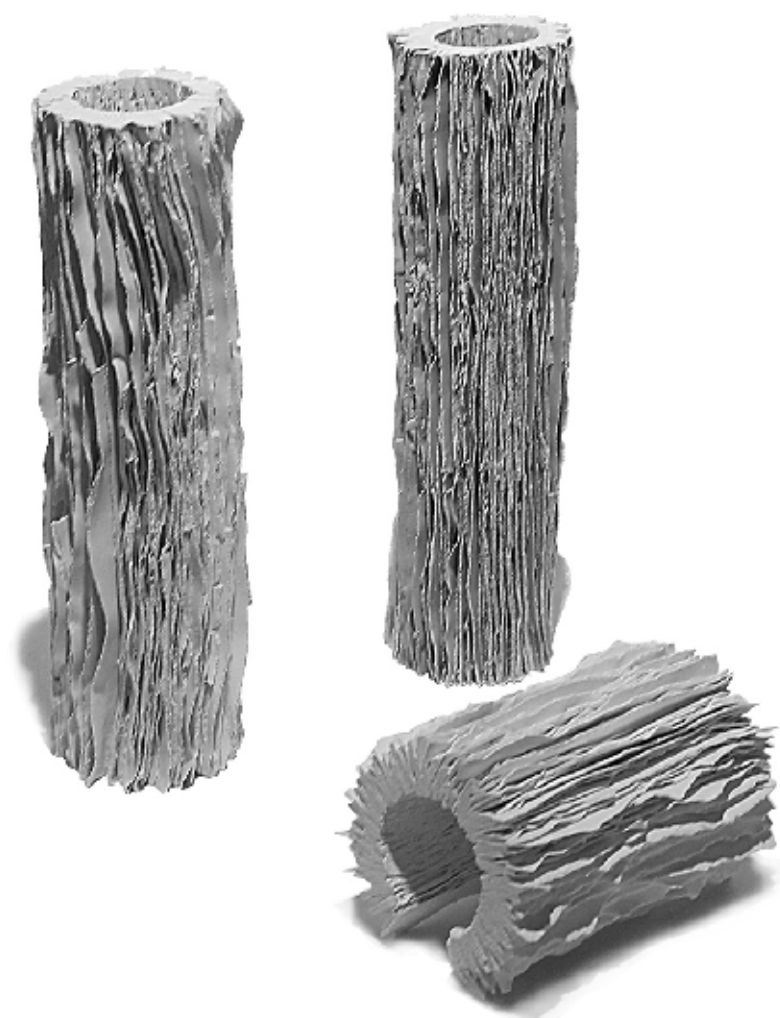
작품 겉면에는 수많은 겹들이 불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와 긴장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자유와 긴장감은 형태에서 느껴지기도 하고 표면에 날카롭게 찢겨진 단면에서 느낄 수 있다.

또한 겹겹이 모여 있는 선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오래된 책을 펼쳐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나무의 결모습으로 보이기도 한다.

겹과 겹 사이에 빛의 음영과 작품 표면에 생기는 그림자의 중첩도 겹의 일부로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작품 6] Layers VI, 400x400x450mm, 1250℃ 산화소성



[작품 7] **Layers VII**, 600x600x450mm, 1250℃ 산화소성

[작품 8] Layers VII

형태적으로는 간결하고 원은 순환하기에 동적이다. 또한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않기에 정적일 수도 있다.

내부 공간을 통해 작품을 들여다 보면 그 속에는 결코 완전히 다른 겹의 이미지들이 나타난다. 외형에서 나타나는 겹은 담담하고 고요하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겹들이 요동치고 공존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또한 작품을 눕혀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공간 연출과 더불어 원기둥 중심의 빈 공간을 통해 안과 밖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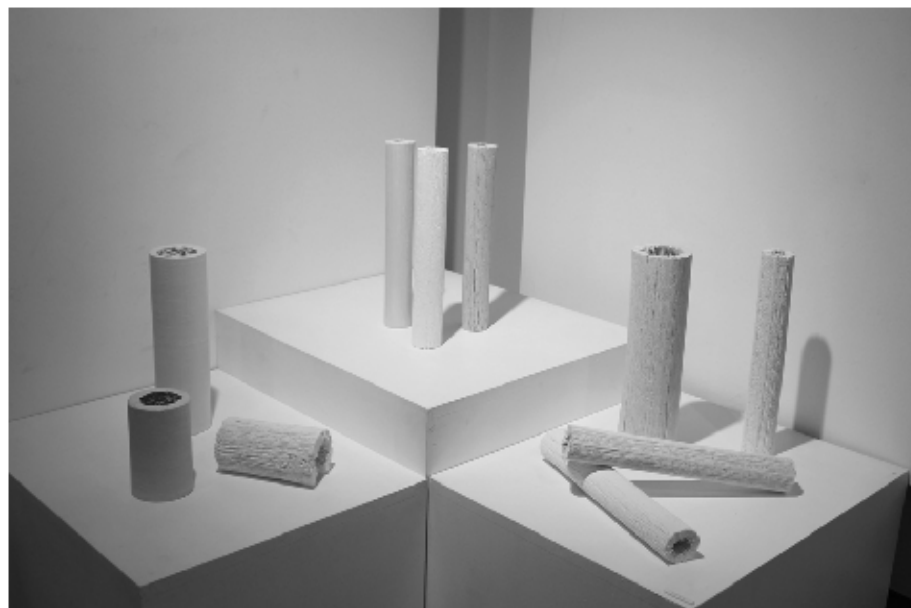
[작품 8] Layers VII, 500x700x500mm , 1250°C 산화소성

전시장 전경 A, B

다양한 크기와 색상의 작품을 한 공간에 연출해본 결과 작품 하나하나 개성을 살려줄 수 있었다. 색이 있는 작품은 작품과 작품을 연결해 주기도 하면서 분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비슷한 형상을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공간이 확장되고 작품의 겹이 서로 중첩되어 새로운 겹의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전시장 전경 A



전시장 전경 B

V. 결 론

인간은 주변의 수많은 현상을 보고 느끼면서 판단하고 그 속에서 본질을 찾으려 한다. 본질은 사물의 형태를 통해 드러나며, 현실 속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예술가는 자신이 인식하고 느낀 것들을 자기만의 언어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관적인 사고를 객관화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월의 흔적, 시간의 축적 등 추상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겹의 이미지를 원과 원기둥의 형태를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연구로 이론적 고찰과 작품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겹은 물체의 선과 선 또는 면과 면이 포개진 상태로 포개진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내며 겹과 공간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연속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원과 원기둥의 기하학 형태는 장식성을 제거한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시각적으로 명쾌하고 강한 집중력을 모을 수 있다는 이론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둘째,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겹을 작품으로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행위의 반복을 통한 시간의 축적과 흔적을 원과 원기둥 형태에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흙의 물성적 특징과 겹의 새로운 조형성을 체험 할 수 있었다.

셋째, 페이퍼클레이를 이용한 판 성형과 이를 찢는 행위를 통하여 우연적이고 긴장감 있는 선의 겹침을 표현 할 수 있었다. 또한 판과 판 사이에 색상을 사용함으로써 겹의 이미지가 서로 결합, 분리되는 역할을 하고 때로는 지층의 단면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 할 수 있었다.

넷째, 페이퍼클레이는 소성 후 종이가 있던 부분에 기공이 생겨 일반 소지로 작업 했을 때 보다 강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작품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 유약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강도에 영향을 주어 적은 힘으로도 쉽게 파손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단점은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될 부분으로 남게 되었다.

본 연구자는 작품 작업 과정을 통하여 이론적, 실제적 틀을 형성해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형태를 비롯한 소지개발과 유약에 대한 깊은 연구를 진행 한다면 더욱 창의적인 조형작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1] 김미옥·백숙자. (2000). 「입체조형의 이해」, 그루
- [2] 김춘일·박남희. (1991).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 [3] 유한태 역. (1989). 「시각언어」, 대광서림
- [4] 이종우. (2000). 「기하학의 역사적 배경과 발달」, 경문사
- [5] Colin Rown. (1984). 「The Mathematics of the Ideal Villa and Other Essays: Transparency: Literal and Phenomenal」, The MIT press
- [6] Wassily Kandinsky. 차봉희역. (1997). 「점.선.면」, 열화당

학위논문

- [7] 김여름. (2008.). 「원의 형태를 응용한 장식용 화기 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남행선. (2006). 「겹의 이미지를 이용한 도자조형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백민정. (2010). 「원의 반복을 모티브로한 도자 조명 연구」, 서울산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조희택. (2006). 「기하학적 형태와 유기적 형태를 이용한 도자조형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최석원. (2007). 「섬유질을 이용한 점토레이어의 표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기간행물

- [12] Public Art (2012년 01, 04월호)
- [13] 월간도예 (2011년 05, 09, 11월호)
(2012년 01월호)

웹사이트

- [14]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ber.com
- [15] <http://stdweb2.korean.go.k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16] <http://www.naver.com>
- [17] <http://www.google.co.kr>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ve Ceramic Art by the Layer Image

Kim, Hae Sook

(Supervisor Kim, Jong Hyun)

Dept. of Ceramic Arts

Graduate School of Industry and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 is a human activity to express beauty by combining thinking and emotions and it is not just the expression of beauty but an activity that naturally stimulates and further develops human aesthetic emotions. An artistic object originates from the personal interest of an individual artist and is the visualize form of the artist's personality and inner side.

This study aims to express the image of layered pieces of paper, one of the formative images of various layers, as ceramic form that is combined with circle and cylinder. Geometric shape has a strict order, logical and rational form, and visual clarity. In addition, as it has a simple shape and no decoration, it is easy to develop its implicatively symbolic significance in various ways while maintaining simplicity.

In this light, the author attempted to express overlapped layers, the trace of time and the concept of time spanning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s the stream of simple and fine lines by using the image of layer and geometric form. Another aim is to formatively express and visualize the sensory impression and implicated significance of layer.

Chapter II examines the notion of layer and images of various layers created by the nature and human through the general consideration of layer and then the content and presentation methods of modern works of art, focusing on paintings, sculptures, and ceramics.

This chapter also looks into various examples and their photos to examin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ircle and cylinder, which form this

work of art, and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circle that demonstrates the personality of the artist. This serves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study, which aims to visualize the image of layered pieces of paper in geometric form.

Chapter III describes the plan for the work, making process, and the content of the work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work: it was planned to express the image of layered pieces of paper in the form of circle and cylinder and the actual method to realize this design was to use paper clay and pipes.

This study attempted to express the image of layered pieces of paper, one of various images of layer, in the form of circle and cylinder and to demonstrate the texture of paper and lines with tension through the motion of tearing paper. In doing so, the layer of various meanings could be visualized and communicated.